

짐 스피겔 박사, 종교철학, 세션 10, 지옥의 교리

© 2024 Jim Spiegel 및 Ted Hildebrandt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지옥의 교리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종교적 믿음의 합리성의 여러 차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 우리는 유신론적 주장과 그에 대한 몇 가지 반대 의견을 살펴보았고,
우리는 악의 문제를 유신론적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대 의견으로
여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유신론적 종교의 주요 문제로 간주하는 교리,
즉 지옥의 교리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려할 몇 가지 질문은
지옥의 교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기독교 신학자와 성경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지옥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무엇인지, 그리고 다양한
견해의 문제점과 강점은 무엇인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가장 저명한 형이상학자 중 한 명인 데이비드
루이스의 지옥 개념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비판의
본질을 보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는 정통 기독교의 지옥 교리를 감안할
때, 신이 지옥에서 영원히 그리고 극도의 강도로 사람들을 고문함으로써
악을 행한 죄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루이스는 정통 기독교의 지옥 교리를 감안할 때, 신은 내가 지적했듯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영원히 고문함으로써 악을 행한 죄가 있으며, 가장
사악한 인간조차도 유한한 죄를 지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저주받은
자들의 처벌은 그들의 범죄에 비해 무한히 불균형하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따라서 그는 신이 하는 일이 최악의 폭군이 한 일보다 무한히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루이스는 이 문제가 악의 문제에서 소홀히 다루어졌지만, 신이 허락한 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신이 저지른 악의 문제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는 표준 버전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말합니다. 적어도 루이스가 보기에,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초래한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에게 행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지옥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물론 사람들이 특정한 종류의 삶, 즉 사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떨어지고 이것이 그들의 사악함에 대한 궁극적인 처벌이거나, 비록 그들이 비교적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죄가 포함되고,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지 못했다면 지옥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인간이 종종 부도덕하게 행동한다는 생각이 주어지더라도, 특히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면, 신이 사람들을 지옥에서 고통받게 하는 것은 여전히 부적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잠재적 대응책을 논의하는데, 비양립주의적 또는 자유주의적 자유에 호소함으로써 문제를 줄이려는 자유의지에 대한 호소로 시작합니다. 신은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원이나 지옥을 선택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옥은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내리는 선택이며, 신을 비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는 단순히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이 받을 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의 답변은, 그가 말했듯이, 신이 사람들을 영원히 구속하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두는 것은 여전히 끔찍하게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보육원에 날카로운 물건과 폭발 장치를 비치하는 부모에 비유하는데, 이는 매우 생생하고 불안한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왜 신은 사람들을 창조하여 그들이 영원히 고통받는 상황에 처하게 했을까요? 루이스는 그것을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그는 비양립주의적 자유나 자유주의적 자유가 최고의 가치인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신이 인간의 자유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했기 때문이며,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요점이 종종 제기됩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와 그런 종류의 관계 가능성을 가진 세상을 얻기 위해서라면 루이스는 그럴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류의 자유는 그것이 나타낼 위험 때문에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는 신이 자신보다 훨씬 더 유혹하고 재촉하는 동안 비양립적 자유를 그대로 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접근법은 지옥에 대한 다양한 해석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저주는 실제로 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과, 많은 성경적 이미지가 묘사하는 것처럼, 극도로 고통스럽거나 극심한 고문이나 화형과는 대조적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신과 동조하지 않거나, 신에게 복종하지 않거나, 신을 거부하는 상태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쾌한 상태이지만 절대적인 고통은 아닙니다. 루이스는 이에 대해 성경에 묘사된 대로 지옥의 고통에 대한 공정한 이해가 아니라고 답합니다. 이것이 지옥의 본질, 불복종의 상태라 하더라도, 그 상황, 그 상태가 결코 시정될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입니다.

또 다른 접근 방식은 유한한 처벌 관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옥의 처벌이 유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신이 결국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를 촉구한다는 생각은 회복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것은 보편주의의 한 형태이며, 우리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루이스는 인간의 자유가 일종의 결정론과 일치한다는 관점인 자유에 대한 양립주의적 관점을 감안할 때, 신은 사람들이 그를 거부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제한된 처벌조치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합니다. 둘째,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결국 돌아선다고 인정하더라도, 이 관점에서 신은 여전히 영원히 고통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것 자체가 극단적인 악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표준적인 보편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신이 지옥에서 누구에게도 벌을 내리지 않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성향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고, 당신은 어떤 종류의 끔찍한 내세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루이스의 답변은 끔찍한 것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지옥 교리는 기독교인에 의해 확증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지옥을 많이 언급한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것이 그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게다가 그는 신자들 아니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그러면 기독교 구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신자와 악인이 모두 같은 영원한 천국 운명을 갖는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의 흥미로운 양보입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둡고 분명히 불공평한 생각이므로 이 견해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덕이 있는 사람과 사악한 사람이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내세에 대한 적절한 관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양쪽 모두를 원하는 듯합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데이비드 루이스에 대한 비판 중 일부이고, 저는 그것이 지옥의 실체를 긍정하는 기독교인이나 다른 유신론자들에게 좋은 생각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표준적인 견해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는 각 견해에 대한 찬반 주장을 제시합니다. 루이스가 가장 반대하는 견해인 전통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들은 영원한 의식적 고통을 겪는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 문구를 반복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영원한 의식적 고통.

그것은 세인트 오거스틴부터 오늘날까지 대다수의 기독교 신학자와 철학자들, 그리고 엘리너 스텀프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건적 불멸주의로 알려진 견해가 있습니다. 때때로, 그것을 소멸주의라고 부르는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유한한 기간 동안 고통을 받는다는 견해입니다.

아마도 수천 년일 수도 있고, 몇 달이나 몇 주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사람이 얼마나 사악했는지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지옥에서의 고통은 멈추고 저주받은 자들은 소멸되고 말살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온 허무함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조건부 불멸 입니다 .

에드워드 퍼지는 이 관점의 유명한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The Fire That Consumes*라는 책을 썼고 , 저는 이 관점을 고수합니다. 그리고 제가 2019년에 출판한 *Hell and Divine Goodness*라는 책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조건적 불멸주의 를 순수하게 또는 대부분 철학적으로 옹호한 책입니다 .

서두에서 성경적 주장, 찬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책의 나머지 부분은 조건주의적 관점에 대한 철학적 옹호입니다. 그리고 보편주의가 있는데, 이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Thomas Talbot, Eric Wrighton과 같은 사람들은 이 관점을 옹호하고, Gregory MacDonald라는 이름으로 *The Evangelical Universalist*라는 책을 쓴 Robin Perry와 같은 신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니사의 그레고리와 조지 맥도날드에서 그 두 이름을 따와 가명으로 사용했고, 결국 보편주의자로서 옷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 내가 본 보편주의에 대한 가장 좋은 신학적 방어일 것입니다. 이것들이 세 가지 견해이고, 각각 초기 교회에서 중요한 지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초기 교부들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갈렸습니다. 전통주의적 관점, 영원한 의식적 고통에 대한 관점, 그리고 교부들 사이에서 대표되는 조건론적 , 보편주의적 관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영원한 의식적 고통에 대한 확언으로 인해 그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일종의 기본 입장으로 굳어졌고, 조건론적 , 보편주의적이라는 형태로 수세기 동안 많은 이질적인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

RethinkingHell.com이라는 정말 흥미롭고 유익한 웹사이트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Christopher Date를 포함한 몇몇 조건론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Glenn Peoples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Hell Triangle이라는 매우 유용하고 유익한 인포그래픽이 있는데, 세 가지 견해의 차이점과 연결점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견해가 각각 어떻게 설명되고 하나의 그래픽으로 구분되는지 보는 것은 매우 유용합니다.

그럼, 먼저 영원한 의식적 고통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관점을 어떻게 옹호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엘리너 스텀프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이 관점을 옹호하는 최근의 가장 저명한 사람들 중 한 명입니다. 그녀는 지옥의 고문과 신의 사랑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에 대해 토마스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랑에 대한 설명과 그것이 신의 선함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텀프에 따르면, 아퀴나스의 견해에 따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선을 바라는 것, 즉 그들의 본성의 성취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선을 바라는 것은 그들의 본성의 성취를 바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우, 이것은 이성 능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도덕적 행동을 장려하고 덕이 있는 성격을 얻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지옥의 교리는 이것과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퀴나스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스텀프는 우리가 먼저 아퀴나스에게 천국과 지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혹은 스텀프가 말했듯이, 천국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 상태이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을 자유롭게 의지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옥이 이 결합을 자유롭게 거부하는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또한 궁극적인 비이성적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성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결합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과의 그 결합을 거부하는 것은 비이성성의 극치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용하자면, 자신의 본성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려는 의지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 저주받은 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주요 성향, 인용하자면 비이성적인 행동을 습득합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서 자유로운 부도덕한 선택을 통해 악덕과 성격을 습득함에 따라, 이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하지 않는 일종의 제2의 본성을 낳습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들을 그들의 제2의 본성, 즉 스스로 선택한 습득된 본성에 따라 대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삶을 살면서 매일 지옥이나 천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느 정도 혼합된 것일 수도 있겠죠? 주로 덕이 있는 삶을 살다가도 우리 모두가 그렇듯이 죄를 지을 때 가끔 실수를 한다면, 그것은 지옥 같은 선택입니다. 반면에 주로 사악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끔 덕이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천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몸짓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당신이 주로 어느 한 쪽, 즉 천상으로 가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천상이나 지옥의 방식으로 산 삶의 결과는 사후에 그 두 운명 중 하나에 적합한 일종의 본성입니다. 그렇다면 왜 신은 사람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는 대신 그냥 멸절시킬 수 없었을까요? 이것은 일종의 조건론적 또는 멸절론적 질문입니다. 스텀프는 아퀴나스가 이것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존재를 근절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그것은 항상 악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인용문, 그런 압도적인 선이 없다면 저주받은 자의 소멸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따라서 선한 신에게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또한, 저주받은 자를 고립시킴으로써 신은 그들이 더 이상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스텀프가 여기서 내린 아이러니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은 저주받은 자의 선을 증진시키고, 그들을 고립시키고, 그들의 완전한 소멸을 막음으로써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존재를 보존하지만, 그들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더 많은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신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한데, 이는 다시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 몇 가지 의문점을 남깁니다.

하나는, 무한한 악, 영원한 고통, 악을 피하는 것이 어떻게 가장 중요한 선이 될 수 없는가? 왜 그것을 없애거나 궁극적으로 저주받은 자의 두 번째 본성, 저주받은 자의 두 번째 본성, 그리고 그들이 획득한 지옥을 변화시킴으로써 막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것은 보편주의적 질문일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의 본성의 성취를 추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전능하신 신이 왜 그것을 다시 이룰 수 없겠는가? 왜 그는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변형시켜 모두를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 모두를 구원할 수 없겠는가? 그렇다면 이제 조건적 불멸주의 또는 소멸주의로 넘어가 보자.

이 견해는 인간은 본래 불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일부로서 하나님에 의해 불멸을 부여받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영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삶은 소멸의 형태로 끝날 것입니다. 저의 책, Hell and Divine Goodness는 철학적, 신학적 탐구이며, 주로 철학적입니다. 그것은 조건부 불멸주의 관점에 대한 철학적 방어입니다.

다음은 제가 주장하는 몇 가지입니다. 조건부 불멸론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는 인간이 본래 불멸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일부로서 하나님에 의해 불멸 또는 영생을 부여받는다라는 견해입니다. 불멸은 신의 은혜에 따라 조건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반면, 저주받은 자들은 유한한 기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결국 소멸됩니다. 따라서 조건부 불멸론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일부 성경적, 철학적 고려 사항은 이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하나는 파괴에 대한 광범위한 성경적 언어입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파괴되거나 멸망하는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원히 산다면, 그들은 실제로 파괴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에 대한 성경적 이미지는 불은 타면서 소멸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소멸을 암시합니다. 둘째, 성경에는 저주와 영생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있습니다. 악한 자의 저주와 대조적으로 영생은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됩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면, 그들의 운명도 영생입니다. 고통스러운 영생이지만, 그래도 영생입니다. 셋째, 모든 것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은 매우 두드러진 성경적 주제입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주받은 자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산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보편주의에 대한 주장입니다. 하지만 조건론자들은 적어도 조건론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멸절될 때,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남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몸만 파괴할 수 있는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에서 몸과 영혼을 모두 파괴할 수 있는 신을 두려워하라. 그것은 지옥이 실제로 영혼이 파괴되는 곳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면 계시록 20장과 21장에 언급된 두 번째 죽음의 개념이 있다.

신학자와 성경 학자들은 조건론적 관점 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논쟁합니다 . 두 번째 죽음은 지옥에서의 영혼의 죽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의에 대한 논증입니다.

저주받은 모든 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다면, 이는 유한한 죄에 대한 무한한 형벌이며, 이는 매우 불공평합니다. 분리되고 유한한 죄에 대한 끝없는 고통입니다. 그 정의론은 실제로 순전히 철학적 주장이지만, 조건 론적 관점을 옹호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주장 중 하나입니다.

조건주의적 관점 에 대한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 특히 전통주의자들이 제기한 반대 의견입니다. 하나는 소위 지위 원칙에 호소합니다.

이 아이디어는 우리의 죄에 의해 불쾌함을 느낀 사람, 즉 신의 도덕적, 형이상학적 지위가 전통주의자에 따르면 이 경우 적절한 처벌을 적절하게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하거나 끝없는 고통입니다. 신이 무한하고 거룩하다면 신에 대한 죄는 무한한 처벌을 보장합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조건론자들은 종종 영원한 의식적 고통이 실제로 무한한 처벌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관찰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죄는 결코 완전히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것이 무한한 범죄이고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라면, 우리는 지옥에서 사는 동안 어느 시점에서도 무한한 고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고통을 받았을 뿐이고 무한한 고통은 결코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처벌이 주로 고통으로 이해된다면 아무도 무한한 처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항상 뛰어난 도덕적 악이 남아 있고, 적절하게 처벌받지 않은 어떤 죄가 처벌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무한한 신, 완벽하게 도덕적이고 거룩한 신에 대한 죄가 우리를 무한히 유죄하게 만들고 따라서 무한한 악에 대해 유죄하게 만든다면, 영원토록 처벌받지

않은 것은 무한한 양의 악입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악에 대한 신의 최종 승리를 설명하는 전통적 관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주받은 자의 끝없는 처벌을 정당화하려는 또 다른 견해는 지옥에서 계속되는 죄라는 전체적인 생각에 호소합니다. 계속되는 죄라는 주장에 따르면 저주받은 자는 지옥에서 끊임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점점 더 많은 처벌을 받을 만합니다. 그들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과거의 죄에 대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것은 영원히 무한정 계속됩니다.

이제, 이 관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자유주의적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저주받은 사람들 중 적어도 일부는 죄를 짓는 것을 멈추어 처벌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하느님은 그들을 지옥에서 풀어 주시고, 일부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 관점 역시, 지속적인 죄라는 명제는 영원한 도덕적 악을 암시합니다. 사람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처리해야 할 죄가 항상 더 많아집니다. 이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결코 악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하십니다.

처벌받을 뛰어난 도덕적 악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지위 원칙과 지속적인 죄 이론에 근거한 여기의 두 가지 개념은 영원한 도덕적 악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좋습니다. 이제 세 번째 관점인 보편주의적 관점으로 넘어가서 *The Inescapable Love of God*라는 책을 쓴 토마스 텔벗의 *아이디어 중 일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Talbot에 따르면, 다른 기독교 교리와 결합하면 영원한 형벌 교리는 모순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유신론을 구별하고, 일종의 보편주의를 긍정하는 성경적 유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옹호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보수적 유신론이라고 부르는 것, 즉 신이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종종 말하듯이, 신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도서에 나와 있듯이, 당신이 누구이든 신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신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기독교계에서 표준적인 견해입니다.

둘째, 이 보수적 유신론적 관점은 신이 이 사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이 거부하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이 매우 사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영원히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텔벳에 따르면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에 헌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신이 어떤 사람들을 자신과 화해시키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그들의 장기적인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영원히 고문하거나 끝낼 수 있을 때 끝없이 고통받도록 내버려 둔다면 어떻게 누군가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옥에서 끝없이 고통을 주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가 냉정한 유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신이 창조된 사람 중 일부는 사랑하지만 모든 창조된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언합니다. 신은 어떤 사람들을 돌이킬 수 없이 거부하고 영원한 고통에 처하게 할 것입니다. 특히 그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말입니다.

이 관점의 문제점은 만약 사랑의 친절이 신의 본질적인 속성이라면, 신이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개념은 반드시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사랑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래서 Talbot에 따르면, 그는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의 친절이 신의 우연한 속성이라면, 그것은 신에게 정말로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연적이거나 본질적이지 않은 신의 속성이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의 신이 한 사람을 사랑하려면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은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이 특정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을 증오로 바꾸었다면 신은 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는 여러 가지 긴장, 즉 모순이 있습니다.

또한, 신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 심지어 우리의 적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신이 저주받은 자들에게 부정하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이 명령과 모순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그가 적당히 보수적인 유신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Talbot이 말한 적당히 보수적인 견해에 따르면, 신은 모든 창조된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신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을 거부하고 영원히 신과 분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은 자들을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그는 단지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텔벗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지옥에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신을 계속 거부할까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경우에 영원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 가장 사악한 사람들이 자신 안에 창조한 토마스적 두 번째 본성 때문에 너무 강경해져서 회개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까요? 자유주의적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만약 누군가가 그것을 믿는다면, 적어도 지옥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회개할 가능성을 열어주지 않을까요? 또한 저주받은 자들의 고통의 현실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의 행복을 훼손할 것입니다.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는

지옥에 대한 제 책의 마지막 장의 대부분을 이 천국의 슬픔의 문제에 바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에 있다면, 그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또는 좋은 친구가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어떻게 천국에서 진정한 평화와 더럽혀지지 않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의 행복을 훼손하지 않겠습니까? 피터 기치(Peter Geach) 등은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자들의 도덕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무한한 형벌의 정의를 보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치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정의를 감사하게 여길 것입니다.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 등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탈벗의 답변은 처벌의 정의를 보는 것이 그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타락한 채로 남아 있다는 슬픔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나 아들이 정당한 이유로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그들이 마약을 거래했다면, 당신은 그 정의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신은 여전히 그들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깊이 불안해합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러니, 여기에 정의가 있다고 해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덜 슬픈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Talbot은 영원한 형벌에 대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주받은 자의 멸절이나 인류의 보편적 구원을 긍정하는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멸절주의나 조건주의가 이러한 문제, 또는 적어도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는 후자의 관점, 즉 보편주의적 관점을 선택하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화해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 이 방향을 가리킨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그의 관점은 성경적 유신론입니다. 그것이 그의 용어입니다. 조건론자와 전통론자는 그 용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지옥 교리에 관해서는 그들의 관점이 성경적 유신론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신이 창조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결국 신과 화해하여 영원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편주의는 결국 모든 인간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는 이것이 신이 죽음 이후에 많은 사람을 벌할 것이라는 견해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옥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견해가 모두 확인하는 바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영원히 지옥에 남아 있을까요? 지옥은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받을까요? 모든 사람인가요 아니면 일부만 구원받을까요? 보편주의는 타락한 천사나 사탄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편주의자들은 악마조차도 궁극적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이 자주 인용하는 보편주의 구절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보편주의를 성경적 선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교부들 중 누가 이 관점을 긍정할 수 있었을까요? 특히 많은 전통주의자들은 이 관점을 옹호하기 위해 어떤 종류의 성경적 주장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해하거나 회의적입니다. 보편주의자들은 어떤 종류의 구절에 호소할까요? 글쎄요,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1:20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를 통하여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으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예일

대학의 철학자이자 기독교 철학자인 키스 드로즈는 누군가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거나 멸망당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화해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드로즈와 다른 보편주의자들이 강조하는 요점입니다.

로마서 5장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정죄를 가져온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가 모든 사람에게 무죄와 생명을 가져왔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두 구절에서 넘어지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 사이에 평행이 있음을 주목하세요.

그것은 전부이고 전부이며, 그리고 그것은 많고 많습니다. 로마서 11:32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으로 가두어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셨다고 말합니다. FF 브루스는 이 경우의 전부는 예외 없는 전부가 아니라 구별 없는 전부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주의 비판가들이 종종 하는 중요한 구분입니다. 드로즈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전통주의자나 다른 비보편주의자들이 할 반론은 아니요, 우리는 사악한 자의 궁극적 멸망을 암시하는 다른 많은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보편주의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을 강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10:9은 만일 당신이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11과 다른 곳에서는 모든 혀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시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보편주의를 선호하는 삼단논법을 만들어내는데, 결론은 모든 혀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표준적인 반대 의견은 죽은 후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늦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주의자들과 조건부주의자들이 보통 하는 일종의 가정으로,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주어지고, 죽은 후에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27 너무 늦었습니다.

또한, 최소한 표준적인 해석을 통해 라자로와 부자의 우화에 관해 전달된 것 같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당신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DeRose는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왜 이생에서 제가 한 고백이 그보다 더 공로가 있다고 여겨져야 합니까? 그는 그것이 우리가 이생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찬반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주요 친보편주의 구절 중 일부이거나 특정 성경 학자들이 종종 보편주의적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편주의에 대한 잔류 문제 또는 잔류 문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악인의 멸망을 강조하는 많은 성경 구절입니다.

비교해 보면, 궁극적인 보편적 구원을 암시하는 구절은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볼 때, 저와 다른 조건론자 와 전통주의자들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주의적 방향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지, 그저 쉽고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복잡한 논쟁입니다. 모든 측면에서 주장, 찬반이 있습니다.

우리는 초기 교회, 교부 시대에 기독교 신학자들 사이에 왜 그렇게 많은 의견 불일치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잠시 멈추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그것에 대해 독단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지옥이 실재한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운명입니다. 그러니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능한 한 충실한 삶을 살도록 합시다.

그럼 지옥 교리에 대한 우리의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은 종교 철학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제임스 스피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10, 지옥 교리입니다.